

## “장애인 사역,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해”



8월 31일 미주복음방송이 10월 20일~21일에 개최될 (2023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GBC 제공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이 지난 8월 31일,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오는 10월 20일(금)~21일(토)에 ANC온누리교회에서 개최될 '2023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를 앞두고 설명회를 가졌다.

미주복음방송과 ANC온누리교회 공동주최로 열리게 될 이번 '2023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는 '차세대 장애사역 리더 양성'이라는 대주제 아래, 미 주류 교회에 손꼽히는 장애인 사역 전문가들과 한인교회 장애인 전문 사역자들이 강사로 나서, 차세대 장애 사역의 미래와 리더 양성에 대한 방향을 모색한다.

31일 설명회에서 이영선 목사는, "제가 장애인 사역을 18년을 했다. 엘에이 와서 99년부터 발달장애 사역을 18년간 하고, 장애 사역을 내려 놓고, 복음방송 사장으로 섬기게 되어

서 빛진 마음이 있다"며, "CDC(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3~17세 사이 발달장애인은 약 17%에 이른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기획하게 된 계기를 전했다.

이어서, "한인교회 고령화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목사님들이 항상 어떻게 차세대를 오게 하냐고 고민하신다. 교회가 발달장애 자녀들을 품으면 그 부모들이 교회에 올 확률이 커진다. 젊은 부모들이 교회에 오고 싶은데 아이들을 보낼 프로그램이 없다는 얘기를 하신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 기반(Need-Based)이다. 교회의 Need Based는 시니어 사역과 장애 사역"이라고 말했다.

이영선 목사는 "지체장애의 경우, 동기부여만 해주면 된다. 지적인 문제가 없으면 동기부여만 해주면 지체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일어

서서 간다. 발달장애는 지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르다. 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부모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없다. 그것이 교회 사역의 전부가 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교회가 차세대를 품겠다는 말은 허공에 하는 선언 밖에 안되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부분을 지금부터는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민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야 할 문제가 이 두 사역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라며, 이민 교회에 앞서 장애사역을 해 온 미국 주류 교회를 통해 이민교회 안의 장애사역에 관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며, 주류의 흐름을 따라 가야 한다고 말한다, "시기적으로 저희에게 꼭 필요한 컨퍼런스다. 이것을 통해서 패러다임을 바꾸고, 한국 교회의 한국적인 생각을 바꿔야 한다. 1.5세 2세를 포용하기 위해서는, 주류의 흐름 대로 같이 가야 한다. 발달 장애사역이 교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 교회 확장을 얘기하지만 차세대 교인들의 정착을 위한 준비가 안 돼 있다. 장애 사역은 큰 교회만 한다는 생각, 꼭 전담사역자, 부교역자가 있어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가 사실 1세대보다 장애 사역에 더욱 열려 있고, 더 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사역을 18년 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부모님과의 관계였다. 부모님들은 무한대로 요구하신다. 그것 때문에 번아웃되어서 장애 사역을 내려 놓으신 목사님도 계신다. 다음세대는 1세대 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픈되

어 있고 상처를 안 받는다."

그는 메인 강의에 앞서, 20일(금)에 열리는 사전 컨퍼런스 'Disability 101 : 포용적 장애 사역'을 강연할 제니 본 토벨 (Jenni Von Tobel)에 대해, 미국의 10대 교회 중 하나인 윌로우 크릭 교회(Willow Creek Community Church)에서 29년간 장애 사역을 해 온 전문가로, 장애 사역에 대한 개론적인 것부터 윌로우 크릭이 어떻게 장애사역을 개발해 왔는지를 3시간에 걸쳐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교회 발달장애 프로그램의 기본 모형을 만드는 데, 발달장애자와 하이 스쿨 봉사자를 매칭해 진행하는 밀알의 '도요 사랑의 교실'이 특별히 기억했다"며, 미주 밀알에서 사랑의교실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릭 워렌 목사의 부인 케이 워렌 사모에 대해, "아들이 자살한 아픔을 가졌다"며, 지금은 은퇴했지만 정신적 문제와 관련된 사역을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에릭 카터 박사(Erik W. Carter, Baylor University)는 장애 관련 학문의 권위자이며, 크리스티나 김수(Christina Kimm)는 한인으로서 장애 문제, 통합 교육과 관련해 주류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Grace Community Church)의 존 맥아더 목사는 초창기부터 통합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모범을 보여줬다며, 그 교회의 장애 사역을 하고 있는 릭 맥린(Rick McLean)을 소개했다.

이영선 목사는, 한인교회의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 사역의 패러다임 전환이 당면 과제라며, 이민교회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주디 한 기자

## 美 청소년 최근 5년간 3,600명 성전환 수술

미국 전역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소 3,600명의 청소년이 신체를 손상하는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통계가 이번 달에 미국의학협회저널(JAMA)에 발표되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월간 의학지인 JAMA 네트워크 오픈은 지난주에 "미국에서의 성전환 수술에 대한 전국 추정치(National Estimates of Gender-Affirming Surgery in the US)"라는 제목의 연구를 게재했는데, 이 연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의 성전환 수술의 시간적 동향을 조사했다.

이 보고서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48,019명의 환자를 조사했으며, 저자로는 컬럼비아 대학교 의과 대학 산부인과 및 외과학 부문의 레이슨 라이트 박사, 린 첸 박사, 유키오 스즈키 박사, 돈 허시먼 박사, 그리고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의과대학 산부인과 및 외과학 부문의 코지 마츠오 박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 표본에서 12세부터 18세 사이의 청소년

은 3,678명(7.7%)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술을 받은 환자의 대부분은 19~30세(52.3%)에 속했으며, 31~40세는 21.8%를 차지했다. 41~50세 사이인 환자는 약 9.1%였다. 또한 수술 연령 중 51~60세(6.2%), 61~70세(2.6%), 70세 이상(0.4%)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성전환 수술을 받은 12~18세 청소년 중 87.4%가 유방 또는 흉부 수술을 받았으며, 11%가 생식 기관을 제거하거나 만드는

수술을 받았다.

전체 성전환 수술 건수는 2016년 4,552건에서 2019년 13,011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가, 2020년 12,818건으로 약간 감소했다. 전체 인구 중에서 유방 또는 흉부 수술이 차지하는 비율은 56.6%로 생식기 수술(35.1%)보다 더 높았다.

이 연구는 성전환 수술을 "성별 확인 수술"(gender-affirming surgeries)로 지칭하며 "삶의 질 향상, 높은 만족도, 성별 불쾌감 감소, 우울증 및 불안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2면으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시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뱅크럽시 ■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 213.820.3704

2023년 **대박**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혜택 / 30% Tax Credit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 부터 Payment)  
 ◎ 전기료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BTS SOLAR DESIGN 213.500.8000**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택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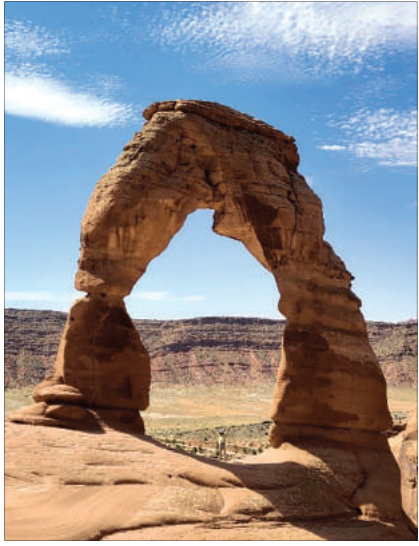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원)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영)국제비즈니스 USA 이사장  
 (전)남가주 교외임의의 고문 변호사  
 (전)제미발행기 협회 고문 변호사  
 (전)중부상공회의소 이사장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디카시인협회 | 금주의 시



너츠 아치

도너츠야
나도 너를 만나러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왔겠지
네 속에 들어가
두손을 번쩍 들어보고
소리도 질러보지만
모두가 다 작아지는걸
그러나 주권자 하나님아
나를 만물 통치자로 세우셨기에
마음을 활짝 펴고
가슴을 쪽 내밀었더니
구름들이 박수를 치는구나

-글 사진: 최순길-

→1면 기사 '美 청소년 최근 5년간...' 에 이어서
그러나 탈성전환자(detransitioners)들은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15세 때
이중 유방 절제술을 받은 클로이 폴(Chloe Cole)은
청소년 시절에 자신의 성별 불쾌감을
치료한 의료 제공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내에서는 현재 약 24개 주에서 미
성년자에 대한 일부 또는 모든 유형의 성전
환 수술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주들은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플로
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인디애나, 아이오
와, 캔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몬타나, 네브래스카, 노스캐롤라이나, 노스
다코타,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웨스트버지니아에 해당된다.
김유진 기자

미주복음방송, 사역 후원 위한 특별생방송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이하 GBC)의
방송사역 후원을 위한 2023 GBC 공개헌금
의 날 '아름다운 동행' 이 오는 10월 6일(금)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특별생방송
으로 진행된다.

GBC공개헌금의 날은, 상업광고 없이 후원
금으로만 운영되는 GBC의 방송사역을 위해
약 12시간 특별생방송과 함께 공개모금을 하
는 날로서, 후원금은 AM스테이션 모기지 상
환과 안정화된 온라인 스테이션 개발, 더불
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방송할 수 있는 종합미디어로 발전시키
는 데 사용된다.

미주복음방송의 이영선 사장은 "미주 크리
스천 한인 방송사의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
는 미주복음방송이, 앞으로 어떠한 위기에도
그 사명을 충성되어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성도와 교회들이 '아름다운 동행' 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 고 전했다.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이 날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하며 방
송국 및 부스를 방문하는 모든 청취자와 후
원자들에게 특별 제작한 예코백과 2024년 탁
상용 캘린더 등을 선물로 증정한다. 모금 부
스는 GBC Anaheim 본사, GBC LA Studio
지사, 나성순복음교회, LA 총현선교교회,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이하 GBC)의 방송사역 후원을 위한 2023 GBC 공개헌금의 날 '아름다운 동행' 이 오는 10월 6일(금)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특별생방송으로 진행된다. ©기독교일보

Irvine온누리교회, Torrance 남가주살롱교
회, Buena Park H-Mart, Buena Park 한남
체인, Diamond Bar 한남체인, Fullerton 아
리랑마켓, Garden Grove 아리랑마켓, Korea
Town 한남체인(미정), La Palma 한남체인
에 마련될 예정이다.

공개헌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전화 후
원(714-484-1190), 온라인 후원(Paypal :
http://kgbc.com/homeweb/donation), 모
바일 후원(Venmo: @am1190kgbc), 카카

오텍 메세지 후원 (http://pf.kakao.com/\_
xaMLfxl/chat) 의 방법이 있고 사전참여도
가능하다.

미주복음방송은 1990년 12월 20일 설립자
임종희 목사가 1991년 2월 11일 오전 7시에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현재는 미주 한인 최
대의 크리스천 방송국으로서 365일 24시간
AM1190을 통해 '예수님만 전하는 복음방송'
을 송출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다. 김민선 기자

찬양선교 음악회, 5년 만에 다시 찾아온다



제 9회 찬양선교 음악회가 10월 8일에 개최된다.

팬데믹 기간 동안 어려움 겪은 찬양
사역자 돕기 위해 마련

'제 9회 찬양선교 음악회'가 오는 10월 8일
(주일) 5년만에 다시 개최된다.

10월 8일 오후 6시 30분에 생수의강 선
교교회(19200 Pioneer Blvd., Cerritos, CA
90703)에서 개최되는 이번 음악회는 미주
찬양 선교회가 주최하고 본지와 미주크리
스천신문, 크리스천헤럴드, 크리스천비전신
문, 크리스천위클리, 크리스찬투데이가 후원
한다.

음악회는 찬송가 보급과 찬양사역자, 찬
양팀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남가주 장로성

가단, LAN남성선교합창단, 오렌지 미션콰이
어, 남가주 장로중창단, LA 목사중창단, 소
너러스 싱어즈가 공연하며 바리톤 장상근
씨와 CBS아나운서 엄미나 씨가 특별 출연
한다.

주최 측은 "팬데믹 기간 동안 찬양사역
자들의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 연주
활동도 중단 되고, 레슨도 끊기고, 학교, 합
창단, 교회에서의 사례도 받지 못해서, 알바
로 근근히 생활을 유지하는 사역자들이 많
다. 팬데믹 이전으로 찬양사역이 회복되려
면 2-5년이 걸린다고 한다. 지금은 찬양사
역자와 찬양팀들을 도와야 할 때이다"라고
음악회의 목적을 설명했다.

문의: 562-714-0691 김민선 기자

교회 음향 기초부터 실전 테크닉까지, 한 자리서 배울 기회

원하트 미니스트리가 9월 21일부터 6주
간,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세리토스에 위
치한 원하트 스튜디오(13913 Artesia Blvd,
Cerritos, CA 90703)에서 오프라인과 온라
인으로 '교회 음향 기초' 강의를 개최한다.

이번 미디어 강의는 디지털 콘솔 X-32의
모든 것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음
향의 기초부터 실전 테크닉까지 다룬다. 전
문가 뿐만 아니라, 전문 지식은 부족하지만
교회 음향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원하트미니스트리 대표, 남가주 동신교회
미디어 디렉터인 피터 박(Peter Park), 원하
트미니스트리 프로듀서, 미주복음방송 기술
팀장인 마이크 리(Mike Lee), 원하트미니
스트리 엔지니어, 세리토스장로교회 사운드
엔지니어인 케네스 정(Kenneth Jung)이 강
의를 이끌 예정이며, 12 강좌가 개최된다.

오프라인으로 강의에 참여하면 그룹별로
설치된 콘솔에 직접 적용해보며 강의를 들
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타주의 신청자
들을 고려해 온라인 강의도 제공된다.

강사진은 모두 인증된 기관에서 Sound
Engineering 과정을 수료한 전문가이며, 현
재 각 교회와 일터에서 음향을 담당하고 있
다. 등록비는 오프라인 강의는 \$300(간식
포함), 온라인 강의는 \$150 이다.

원하트 미니스트리는 LA지역을 중심으
로 예배와 문화사역을 펼치고 있는 단체이
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 분에 부에나팍
교회에서 화요찬양모임으로 모이고 있다.

문의 213-347-5080
신청 ONEHEART-USA.COM 김민선 기자

2023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
차세대 장애사역 리더 양성
10월 20-21일 (FRI-SAT)
29년차 장애사역 전문가가 답한다!
ANC 온누리교회
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
주최 GBC, ANC, Milal Mission, Christian Reformed Church, FRIENDSHIP BEYOND BORDERS, PCB BANK, THIS ABILITY ORCHESTRA
KEYNOTE SPEAKER KAY WARREN
CO-FOUNDER SADDLEBACK CHURCH
SPEAKER DR. ERIK W. CARTER, RICK MCLEAN, DR. CHRISTINA KIMM, JENNI VON TOBEL
\*이 외, 한인교회 장애사역 전문가 11인
REGISTER NOW 714-484-1190
9월 30일 까지 K-CHURCHCONFERENCE.ORG
SPECIAL OFFER 대학/대학원생/신학생은 20% 추가 할인
한/영 동시통역 제공



# <1919 유관순>의 윤학렬 감독, 이번에는 ‘부흥’을 담는다

리얼 다큐 <부흥> 제작 위해 남가주 방문, 해설자로 존 파이퍼 목사, 배우 최수종 등 섭외 예정, 2024년 12월 넷플릭스에서

“애즈베리에 어떻게 가게 되었냐면, 저희 교회 집사님들과 애즈베리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는데, 저는 그때 군산에서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코미디 영화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도저히 애즈베리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집사님이, ‘감독님이 애즈베리에 가야 한다는 성령님의 감동을 주셔서, 비행기 티켓비를 감독님 회사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갑자기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20세기 부흥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이안 로버츠라는 젊은 광부였던 신학도의 짧고 단순한 설교로 부터 시작된 웨일즈 부흥(1904년), 조선 선교사로 10년 이상 선교를 했지만 자신의 사역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과 패배감에 젖어 있던 하디 선교사의 통회로 부터 시작된 원산 대부흥(1903년)과 그로부터 3년 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1907년), 아주사 부흥(1906년), 그리고 올해 2월 8일, 애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이르기까지, 이 부흥의 사건들을 보며 이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시켜야겠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느꼈다는 윤학렬 감독. 그가 ‘철가방 우수 氏(2012)’, ‘지령이(2017)’, ‘1919 유관순’(2019)에 이어, 이 ‘부흥 운동’을 하나의 시리즈로 제작하고 있다.

이번에 프로젝트는 거대하다. 국내외 부흥의 중심지를 돌며 부흥의 사건들을 리얼 다큐로 제작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남가주를 방문한 윤학렬 감독을 만나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된 의도와 계기,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 ◆ 이번 촬영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이번 영화 <부흥>은 리얼 다큐로 제작한다. 역사적 사건을 고증하는 다큐가 아니라 고증에 실사 드라마가 융합된 형식이 될 것이다. 올해가 원산 부흥 120주년인데, 원산 부흥이후 1907년 평양대부흥이 있었고, 이것이 2년 뒤 백만구령 운동, 6-70년대 국가 부흥 운동으로까지 이어진다. 미국의 부흥은 고증과 해설, 증언, 원산과 평양 부흥은 드라마로 제작할 예정이다. 정운택 집사가 출연자로 확정되었고 미국 부흥에 대한 해설은 존 파이퍼 목사, 한국 부흥에 관한 해설은 최수종 배우를 섭외하려 한다. 내년 12월 달에 넷플릭스에 개봉할 예정이다.

애즈베리 부흥이 계기가 되었다. 왜 부흥이 되려다 안되었을까? 기록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부흥이 없었다. 영국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곳의 상황은 더 처참했다. 그런데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성령이 현신하게 된다. 이안 로버츠, 그



윤학렬 감독과 오영광 목사, <부흥> 촬영팀이 남가주를 방문했다. 왼쪽부터, PD 강인, 강태광 목사, 카메라 감독 박호훈, PD 민승욱, 윤학렬 감독, 오영광 목사(KAM 선교회). © 기독일보

가 예배가 끝난 후 남아 있는 17명의 성도들을 향해 메시지를 전했다. 그의 메시지는 매우 단순했지만, 부흥의 불길은 웨일즈 전역으로 번져나가 30일 만에 3만 7천 명, 5개월 안에 10만 명이 웨일즈 전역에서 모여 들었다. 이 사건이 있기전 이안 로버츠는 10년이 넘게 매일 기도했다. 부흥에는 어떤 패턴이 있다. 아비 세대의 눈물의 기도가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준다.

### ◆ 왜 한국인가?

한인 디아스포라 청년들에게 영적인 개관화가 필요한데, 이들에게 부흥의 DNA가 있다. 부흥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 부흥을 받을 만한 땅과 사람에게만 허락하신다. 무디(Dwight Lyman Moody)라는 17세 구둣가게 점원에게 하나님은 현신하신다. 이 무학자가 YMCA와 SVM(학생자원선교운동, Student Volunteer Movement)를 만들는데, 언더우드, 아펠젤러, 셔우트 홀, 로버트 하디, 하디의 2년 선배인 게일 선교사 등 한국에 온 선교사의 40%가 거기에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었다. 이게 신기한 퍼즐이다.

### ◆ 제작은 어떻게 진행되나?

미국 촬영은, 9월에 LA 아주사로 부터 시작해서 애즈베리, 시카고, 콜로라도, 털사의 오일 로버츠 대학, 펜사콜라의 브라운스 빌 교회, 워싱턴 DC, 뉴욕 등 부흥이 이루어졌던 모든 곳에 가서 영상을 제작할 것이다. 이후 귀국했다가 영국, 인도 부흥을 취재하고, 원산과 평양은 중국 조선족 프로덕션이 들어가서 취재한다. 그리고 아프리카 부흥을 찍는다. 나이지리아는 여름에 천 만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규모가 가로 15킬로, 세로 25킬로가 넘고 8시간이 넘게 기도한다. 내년 봄에는 미스터 선사인 세트장에서 원산 부흥을 드라마로 만든다.

### ◆ 영화는 현재 기획단계인가? 영화의 분량은 어느 정도인가?

90분 분량이고, 완성도에 따라서 조절될 것이다. 대륙별 부흥은 확대 제작할 것이고 시리즈로 만들 것이다. 국내 촬영은 25퍼센트 끝났고, 감리교의 유기성 목사님,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장로교단의 김은호 목사님, 등 각 교단 별로 인터뷰를 마쳤고 한동대, 총신대 등 국내 대학 총장님과의 10월에 인터뷰 일정이 잡혀 있다.

### ◆ 진정한 부흥의 의미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부흥은 순명이다. 순종은 어르신에게, 조직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속명은 전 쟁터에서 명령에 따르는 것이다. 순명하는 자가 부흥자이다. 순명은, 복음을 양망하는 자. 부흥이 그리스도의 역사이다. 부흥이 있어야 변혁이 있고, 사도 바울의 부흥이 있었기에 유럽이 복음화 되었다.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부흥을 이끄신다.

### ◆ 애즈베리 부흥에 앞서, 누군가의 하나님을 향한 물음이 있어

이번 남가주 방문에 앞서, 윤 감독은 KYM에서 주최한 목요저녁모임에서 이 영화를 촬영하게 된 계기를 상세히 설명했다. “2023년 2월 8일 일반대학교, 채플이 끝나고 무리가 남아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했다. 부흥은 어떤 패턴이 있다. 아버지 세대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 그 기도가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갈망을 가진 한 청년을 선택한다. 저 부흥을 꿈꾸고 갈망했던, 은퇴한 교수가 있었다. 샌드위치맨 흥 목사. 샌드위치 맨처럼, 복음을 홍보하는 문구를 앞 뒤로 부착을 하시고 애즈베리 지역을 다니셨다. 저 흥 목사님은 부흥에 몰입했다. 세상의 시선을 뛰어넘는 하나님께 집중이다. 그분의 기도가 임계점에 다다른 날 그 대학에 부흥

의 불이 떨어졌다.”

그는 이 부흥에 관한 찬반논란을 소개하며, 한국의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저지하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대학교 총장이 ‘대학교의 학사 일정 때문에, 더이상 부흥과 관련된 예배를 우리 대학에서는 드리지 않게 되었다’고 발표하자, 앵커가 ‘하나님의 역사하신 기름부음을 총장이 무슨 권리로 채플 문을 닫느냐’고 분노에 찬듯 이야기한다. 찬양하는 청년 중에 동성애자 청년이 있었다. 그 청년이 트위터에, ‘우리에게도 기름부음을 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올리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것에 대한 옳은 부흥이나 미혹의 영이 아니냐, 찬반 의견이 갈라지기도 했다.”

“미국은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없다. 인종 차별을 이야기하는 순간, 이 사람의 모든 권리가 박탈된다. 있을 수 없는 불문율.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동성애자 청년이 트윗에 그 누구도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회이다. 이미 미국은 동성애 반대를 이야기하는 순간 체포당한다. 바이블 뮤지엄에, 중성 화장실이, 모든 광공서에 중성 화장실이 있다.”

애즈베리의 예배가 끝났다는 공식 발표가 있던 즈음, 한 집사님이 성령께서 주신 감동 때문에 윤 감독을 위해 미국행 티켓비용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무언가에 떠밀리듯 켄터키 주 애즈베리 대학에 도착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된다.

애즈베리 대학의 홍보 담당 목사를 만나, 당일 저녁 그 부흥의 현장에 참여한 청년들이 간증을 나누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학교 내부 프로그램이었지만 특별히 윤 감독에게 참여를 허락했다. 또, 대학교 총장을 만나려면, 공문을 보내고, 일정을 조율하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총장과의 만남도 바로 이루어졌다.

간증집회에 참여한 윤 감독은, 이곳에 하나님이 그를 오게 하신 이유를 발견한다.

“동성애자 트윗으로 논란을 빚은, 엘리야 드레이크(Elijah Drake)가 이렇게 말한다. ‘교회를 떠나려 했는데 성령의 불로 강권적으로 나에게 기름부음을 주셔서 지금 흘리하다.’ 저 현장을 갔다온 지도자들이 그 문제를 함부로 언급하지 못했다. 가장 무명이고 무의하고 가장 능력없는 저에게 저 환경을 다 보여주셨다. 사진을 찍고 녹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아침 일찍, 채플에 들어가 기도했다. ‘저는 추악하고 저는 능력이 없고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저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으니 제 부족한 심령 안에 부흥의 불을 허락해주옵소서, 그 불을 대한민국 청년에게 전이하길 원합니다.’”

“한국은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되고 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명을 맡기실 수 있을까? 장자국가들이 다 무너졌다. 성적자기결정권이 통과되면 안된다고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 부흥은 몰입하는 청년에게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주디 한 기자

## 월드미션대학교 설립자

# 임동선 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뜻깊은 임동선 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 기념 학술세미나

8. 17 (목) 오후 4시  
월드미션대학교

신선목: “임동선 목사의 삶과 영성”  
최운정: “WMU 온라인교육과 영성의 방향”

### 기념관 개관식

9. 24 (주일) 오후 7시  
월드미션대학교

임동선 목사 기념관 개관  
기념 설교집 및 기념품 증정

### 기념 음악회

10. 21 (토) 오후 7시  
동양선교교회

임동선 목사의 일대기를  
다룬 오라토리오 공연

### 비전 넥스트

11. 11 (토) 오후 6시  
월드미션대학교

선교후원금 및 장학금 전달식  
기념 논문집 및 화보집 출간식  
임동선 목사 영상 상영회



500 Shatto Place, Los Angeles, CA 90020  
213-388-1000 학교 홈페이지(kr.wmu.edu) 참조





# 2024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장학생 모집

밀알선교단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정진하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4년도 밀알 장애인 장학생을 모집한다.

수여대상은 ▲밀알장학생(대학 또는 대학원을 full-time으로 재학중인 장애인) ▲꿈나무장학생(사랑의교실 참가자 또는 배움의 기회와 학업의 격려가 필요한 장애인) ▲근로복지생(미주 각 지역 밀알선교단에서 봉사하는 장애인)이며 제출 서류는 1. 밀알장학생 신청자는 신청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소정양식),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본인 신앙 간증문 (최소 500단어), 수입증명서 (예: 최근 세금환급(Tax Return),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Pay stub), 고용주의 편지(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경제적 도움을 받는 곳으로부터 편지 등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가지) 및 추천서 1매 (출석교회 담당사역자 또는 소속학

교 담당 지도교수), 2. 꿈나무장학생 신청자는 신청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소정양식), 재학증명서,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앙 간증문 (최소 500 단어), 추천서 1매 (출석교회 담당사역자(사랑의교실 주임교사) 또는 소속학교 담당 지도교수), 3. 근로복지생 신청자는 신청서, 본인 신앙 간증문, 수입증명서, 추천서 1매를 제출해야 한다.

장학금액은 밀알장학금과 근로복지금은 1인당 \$3,600 (매달 \$300 지급)이고 꿈나무장학금은 1인당 \$1,000.00 (일시 지급)이다. 신청은 2023년 11월 30일(목)까지 우체국 직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하다. 이메일로도 접수 가능하다. 밀알선교단 기사제공 신청 및 문의: 밀알선교단 장학복지위원회 (남가주밀알 사무실)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229-0001 | Email: admin@milalsca.org | Website: www.milalsca.org



밀알선교단에서 2024년도 밀알장학생을 모집한다. 마감은 오는 11월 30일이며 발표는 2023년 12월 29일(금)에 개별통보한다. ©밀알선교단 제공



9월 6일(수) 오전 8시에 사우스베이목사회가 성서장로교회에서 월례기도회를 열었다.

## “우리 약함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사우스베이목사회 월례기도회

사우스베이목사회(회장, 고창현 목사)가 9월 6일 오전 8시 성서장로교회(담임 정충일 목사)에서 월례기도회를 가졌다.

고창현 목사의 인도로 열린 이날 기도회는 이황영 목사(남가주 기쁨의교회)가 대표기도한 후 안병권 목사(가나교회)가 고후 12:6-10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계산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안 목사는 “사도바울도 그를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와 사단의 사자를 제거해 달라고 세 번이나 간구하는 기도를 올렸지만, 주님의 음성엔 ‘네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셨다. 이 음성 이후에 사도가 크게 기뻐하며 약함까지도 자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성도의 상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무릎까지 꿇을 수 있었던 낮아짐을 통해서 그 성도를 회복시켜 주셨고, 지금은 나의 사역에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동역자가 되었다”고 간증을 나누며 “목회자가 낮아질 때 교회가

든든히 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목사는 “목회할 때 경험하는 우리 안에 육체의 약함이나 시련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낮추시고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자랑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자”며 “우리의 약함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가 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안에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는 목회자들이 되자”고 권면했다.

이어 고창현 목사의 인도로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와 교회들을 위해서’, ‘사우스베이 지역 복음화와 하나됨을 위해서’, ‘산불로 큰 피해를 당한 하와이 마우이섬의 희생자들과 이재민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목 목사(한인소망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성서장로교회서 준비한 오찬을 나눴다. 한편, 사우스베이목사회 10월 월례기도회는 10월 4일 산샘교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조셉 리 기자

## 목회자 아버지 학교 제16기 참가자 모집



목회자 아버지학교 제15기 수료자들과 가족, 봉사자들. ©기독교일보

갯즈 패밀리 교회,  
9/10(주일)부터 9/17(주일)까지

두란노 미주 목회자 아버지 학교 제16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오는 9월 10일(주일)부터 12일(수)까지, 그리고 17일(주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갯즈 패밀리 교회(담임 유대호 목사, 655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150이며, 수료자 추천시 장학금이 지원된다.

아버지 학교는 ▲아버지의 영향력 (강사: 박세현 목사), ▲아버지의 남성 (강사: 국윤권 목사), ▲아버지의 영성 (강사: 이정엽 목사), ▲아버지의 사명 (강사: 성요셉 목사)

총 4번의 강의로 구성된다. 목회자 아버지학교는 2003년에 1기가 개설되어, 올해 16기를 맞는다. 19년 동안 411명(1-15기)의 목회자들이 목회자 아버지학교를 수료했다. 미국 목회자 아버지학교는 2000년 4월 개설되어, 2017년까지 785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수료자는 31,104명에 이른다.

아버지 학교는 “이 땅의 아버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남성, 가정의 목자,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운동”을 펼치고 있다.

문의는 714-365-7139 혹은 213-368-2630으로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강사	날짜
1강 박세현	9/10 (일)
2강 국윤권	9/11 (월)
3강 이정엽	9/12 (화)
4강 성요셉	9/17 (일)

오후 5시

등록 마감일 2023년 9월 7일 (수)

부엔나팍 갯스패밀리 교회  
God's Family Church  
655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 등록비 \$150.00  
Payable to Father School

● 등록문의  
고광호 목사 310-896-6483  
성요셉 목사 818-331-2481

\* 가능한 TEXT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위해  
땅 끝까지 가는 아버지운동!

### 제 8373 차

# LA 미주

# 목회자 16기 아버지학교





남가주 한인들을 위한 차세대 외래 진료 클리닉

희를  
굿다

드디어,  
여러분 곁으로  
찾아갑니다!

# 조이스 리, M.D.

## 진료과목

### 만성 질환

→ 당뇨, 비만,  
관절염, 고혈압,  
골다공증

### 노인성 질환

→ 치매, 낙상,  
우울증, 요실금,  
수면장애, 보행  
장애, 영양실조

### 부인과 질환

→ 질염, 골반염,  
자궁경부염

### 예방 접종

왜 병원에서의 기다림을 당연하게 여기시나요?

오랜 대기시간만큼 만족스러운 진료를 받아오셨나요?

무성의 진료로 숨은 병을 발견하지 못해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사태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시니어 환자분들을 위해 최적의 진료 시스템을 도입한 센터메디컬클리닉을 경험해 보세요.

## 하루 진료 환자 최대 7명, 인당 최대 1시간! 한분 한분 정성을 다해 모십니다.

\* 환자 등록 선착순 300명까지 / 진료 사전 예약 필수

- 세분화된 현대의학 단점 보완
- 질병 예방·건강한 삶 유지 초점

가정의학과  
**조이스 리** 초대 주치의  
Joice Rhee, M.D.



“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평생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진료시간 : 월 - 금 8:30 am ~ 5:30 pm  
(714) 519-3024 \*예약과 자세한 사항은 전화 부탁드립니다.  
1995 W Malvern Ave, Unit A, Fullerton, CA 92833

\* 플러튼 골드짐 근처 T-Mobile과 Subway 사이에 위치



# 오정현 목사 “13년 전, 故 옥한흠 목사님 앞에서 울며...”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1일 故 옥한흠 목사 추모 13주기 예배에서 설교를 전하며 회고하고 있다. ©사랑의교회

“13년 전, (故 옥한흠) 목사님 앞에서 울면서(다짐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주의 몸 된 교회는 꼭 지키겠습니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故 은보 옥한흠 목사를 회고했다.

故 옥 목사 추모 13주기 기념예배가 1일(금) 오전 11시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진행됐다. 이 예배는 은보 옥한흠 목사 기념사업회가 주관하고 사랑의교회와 제자훈련목회자 네트워크(CAL-NET)가 함께했다.

예배는 국제제자훈련원 대표 박주성 목사의 사회를 맡았고 CAL-NET 전국대표 임종구 목사(푸른초장교회)의 기도, 오정현 목사

의 설교,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합동 부총회장, CAL-NET 이사장)가 축도했다.

오 목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소원(엡 5:15-27)’을 주제로 한 설교에서 “교회를 향한 목사님의 소원과 사랑은 지극하셨다. 목사님의 사역과 목회 철학 가운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어려워도 교회만이 이 시대를 향한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13년 전 이날을 지금도 기억한다. 태풍이 몰아쳐 길가의 가로수가 꺾이고 전봇대가 쓰러졌다. 40일간 매일 서울대 병원을 찾았는데 이날 아침 소식을 듣고 가니 (고인이 된) 목사님께서 수의를 입고 계셨다. 울면서

“목사님이 사랑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꼭 지키겠습니다.”  
“잘못된 프레임으로부터 사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교회뿐”

다른 건 몰라도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주의 몸 된 교회는 꼭 지키겠다고 했다. (그 이후) 13년 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 자리까지 주의 몸 된 교회를 보호하시고 눈동자 같이 지키신 주님을 찬양한다”고 했다.

오 목사는 “제자훈련의 교회론은 무언가. 옥 목사님께서 가지신 것은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이라며 “최근 정부 관계자와 대화하는데, (공산주의 영향으로) 잘못된 프레임이 정치, 경제, 문화, 언론, 노조 온갖 곳에 영향을 미쳐 어려워진 대한민국 사회를 유일하게 지켜낼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라고 하더라”고 했다.

이어 “왜 교회만의 희망인가. 성경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부라고 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신부라고 하셨다. 신랑의 신부를 향한 소원은 신부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또한 흠이 없고 순결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옥한흠 목사님의 13주기를 맞으면서 제자훈련의 꿈을 가진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 된 신부로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거룩한 영적 전투력을 회복하길 바란다”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역을 하는 한 한국교회에 희망 있다고 믿는다”고 역설했다.

오 목사는 설교를 마치며 “우리의 연합함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신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을 기억하면서 신부의 고귀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전투력을 회복해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 달라. 옥 목사님이 남기신 귀한 유산들을 잘 이어받아 끝까지 한국교회를 지켜내는 거룩한 은혜의 선봉장들로 삼아 달라”고 기도했다.

오정호 목사 “제자훈련 출신다운 총회장 될 것”  
설교 후 참석자들은 ▲옥 목사님의 ‘한 사람’ 목회철학을 이어받아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시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예수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 ‘온사람’으로 세우 목회자들과 훈련된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소원에 전력 질주하길 ▲거룩한 소명감과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시대 정황을 완전히 장악하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비상하길 합심기도했다.

오정호 목사는 축도 전 인사말에서, 교회 갱신협의회(교갱협) 출신으로 처음으로 교단을 섬기게 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군림하는’ 총회장이 아니라 ‘제자훈련’ 목회자답게 충성스레 섬기는 자리로서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오 목사는 이날 열리는 합동 교단 정기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추대된다. 송경호 기자

## 2030 MZ세대 종교인 중 개신교가 거의 60%

### 9,182명 대상,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조사’ 개신교 인구 비율은 감소, 10년 후 10.2% 하락 예상 무종교인이 된 이유...종교에 대한 관심 저하, 불신과 실망

한국교회 내 ‘다음 세대 위기론’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젊은 세대가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는데, 국내 주요 타종교와 비교했을 때 젊은 세대에서 개신교인이 가장 많았다.

목회데이터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얼마 전 발표된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의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의 주요 결과를 5일 소개했다. 해당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9,182명으로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종교인구는 불교 16.3%, 개신교 15.0%, 가톨릭 5.1%로 조사됐다. 전체 개신교 인구는 불교에 이어 2위지만, 29세 이하와 30·40대에선 각각 11.0%, 14.6%, 17.8%로 가장 높은 비

율을 보였다. 이 연령대의 타종교인 비율은 불교가 3.5%, 4.7%, 10.4%였고, 가톨릭은 4.5%, 4.9%, 4.8%였다.

연구소는 “연령별로 보면 20~30대 개신교 인구 비율은 10% 초반대로 평균보다 낮지만, 타 종교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고 했다.

이는 종교인 내에서의 개신교인 비율에서 좀 더 명확히 드러난다. 종교인을 기준으로 개신교 점유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57.9%, 30대 60.3%다. 연구소는 “2030 MZ세대의 경우 개신교가 전체 종교 중 거의 6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연구소는 “이는 다음 세대로 가게 될 경우 한국 종교 중 개신교가 지배적인 종교

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며 “따라서 앞으로 종교인구가 줄고 개신교 인구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래 사회의 부패를 막고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교회학교 학생 한 사람, 청년 한 사람을 기독교 사상과 가치관으로 무장된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한목협의 올해 조사는 종교 실태에 대해 역대 다섯 번째로 진행된 것이다. 1998년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한미준)’이 처음으로 했고, 2004년 한미준이 2차 추적조사를 실시한 후 2012년 한목협이 이 조사를 이어받아 2012년과 2017년, 그리고 올해까지 실시했다.

각 조사에서의 개신교 인구 비율 추이는 20.7%→21.6%→22.5%→20.3%→15.0%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전체 우리나라 인구 중 개신교인 비율은 2012년 22.5%에서 2022년 15.0%로 줄었고, 이 추세를 반영해 향후 10년 뒤를 예상하면 최악의 경우

10.2%까지 감소할 수 있다”며 “이 속도로 하락한다면 향후 10년 뒤에는 개신교인이 우리 국민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추론”이라고 했다.

연구소는 “개신교인은 왜 이렇게 감소하고 있을까? 먼저 과거 개신교인이었다가 현재 무종교인이 된 이유를 보면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가 35%,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29%로 각각 1위, 2위 이유였다”며 “즉 종교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 인식의 저하, 기독교의 행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개신교 하락의 주원인이었다”고 했다.

연구소는 “그런데 이런 원인은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이다. 무종교인의 비신앙이 유 결과를 보면 가장 큰 이유가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40%)이고, 그다음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28%)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결과만을 놓고 보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 이미지를 좋게 하여도 종교적 무관심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개신교인 인구의 하락 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을지언정 하락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sup>TH</sup>) • MYP(6<sup>TH</sup>~10<sup>TH</sup>) • DP(11<sup>TH</sup>~12<sup>TH</sup>)

“아! 이래서~ 믿을 수 있구나!”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 NCA만의 효율적인 Technology 제공
- 완전한 온라인 캠퍼스 환경 구축
- 커뮤니케이션 톨로 간편하게 정보 이용
- 검증된 LMS와 앱으로 높은 참여, 빠른 피드백
- 교사와 학생들 간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
- 데이터에 근거한 학생별 맞춤 교육

-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타 사립학교 대비)
-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 성경필사 장학생을 위한 후원자 모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3 : 16~17)



## 성경필사 장학생을 위한 후원자 모집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세상 미디어에  
너무도 많은 시간을 쓰고 눈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성경말씀을 읽고 필사하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동안 성경 필사를 하게 될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줄 후원자분들을 찾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힘을 내어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도록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 후원방법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기부금은 세금공제 서류 발급 가능)  
CHASE BANK Account #: 611921385  
Routing #: 322271627  
Zelle: chdailyreporter@gmail.com

### 성경 필사 본문 (한글, 영문 선택 가능)

마태복음 · 마가복음 · 누가복음 · 요한복음 · 사도행전 · 로마서

### 성경 필사 후 소감문 작성자 중 선별하여 특별 상품 수여



\* 상품은 광고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독일보



주최 : 기독일보

주관 :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3055 Wilshire Blvd, Suite 480, LA, CA 90010 Tel (213)739-0403 chdailyreporter@gmail.com

특별후원: BTS 솔라 디자인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글렌데일, LA북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213) 674-7966, (213)245-6616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새벽예배) 오전 9:15 새벽예배 (월-토) 오전 6시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토-일) -현장영상예배  
대학원부/EM 오후 2:00 수요일(보)도움 온라인 오후 8시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목회하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den 고지)  
T. (213)386-2233



**씨니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김지훈** 담임목사

주일 1부 전통예배 오전 7:30 토요일기도회 오전 6:00  
주일 2부 전통예배 오전 9:00 아모리(AMANA) 주일 오후 2:30  
주일 3부 열린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학교 오전 9:30  
수요 오전 중보기도회 오전 9:30 영,유아부,유치부,초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cofice1@gmail.com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기에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고광선**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초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예배 오전 6:00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신령 새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초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막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강지연**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새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화평이 있으며 신과 진리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보기도회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서사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실과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주님의 사랑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618-0614  
lordsslovechristianchurch@yahoo.com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디오 오후 6:30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기와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이명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초중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아름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이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화)  
목요집회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금요일기도회(마사지) 오후 8:00  
중보기도회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a@hnsa.org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보기도회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안정섭**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초, 고등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kumc.com



**김지성** 담임목사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토)예배 06:00AM  
- 3부 11:00AM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wgm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보기도회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부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새침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래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 영 성공회 성직자 53.4% “동성혼 주례 찬성” ... ‘교리의 현대화’ 원해



©영국성공회 페이스북

영국 성공회 성직자 대다수는 동성결혼이나 혼전 성관계 등의 이슈에 있어서 ‘교리의 현대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더타임스(The Times)가 약 10년 만에 실시한 종합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성공회 성직자들은 교회가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혼전 및 동성 성관계에 대한 전통적이고 성경적인 입장을 버리기를 원했다.

현역 성직자의 약 6%에 해당하는 대리 목사, 교구 목사, 사제를 포함한 1,200명의 성직자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가운데, ‘동성결혼 주례 금지법 개정’을 지지하는 성직자는 53.4%, 반대하는 성직자는 36.5%였다.

이는 2014년 조사에서 성직자의 51%가 “동성결혼은 잘못됐다”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다. 또 성직자의 62.6%는 “교단이 혼전 성관계에 대한 반대를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런던 킹스칼리지의 신학 및 종교학부 학과장인 린다 우드헤드 교수는 “성직자들이 지도자들보다 더 온건한 입장을 취한다”며 “지도자들이 최전선에 있는 신부들의 말이 더 귀를 기울였다면, 오늘날 교단이 ‘더 나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리즈의 니 베인스 주교는 성명을 통해 “영국성공회는 인기를 추구하는 클럽이 아니다. 그러나 사제들은 진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회적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다”고 했다.

런던 킹스칼리지의 신학 및 종교학부 학과장인 린다 우드헤드 교수는 “성직자들이 지도자들보다 더 온건한 입장을 취한다”며 “지도자들이 최전선에 있는 신부들의 말이 더 귀를 기울였다면, 오늘날 교단이 ‘더 나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리즈의 니 베인스 주교는 성명을 통해 “영국성공회는 인기를 추구하는 클럽이 아니다. 그러나 사제들은 진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회적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다”고 했다.

변증학 웹사이트 ‘갯첸스션’(Got Question)의 한 글은 “성경이 동성애를 부도덕하고 부자연스러운 죄로 규정한다. 레위기 18장 22절에서는 동성애를 가증한 죄로 규정하고 있다. 로마서 1장 26~27절은 동성애 욕망과 행동은 ‘부

끄러운 일’이고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선언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은 동성애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라고 말하고 있다. 성경은 동성애를 죄로 여기고, 동성애자들이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사실상 죄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성경에 따르면,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평생 결합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창세기 2장 21~24절, 마태복음 19장 4~6절).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결혼 제도를 왜곡하는 것이며, 결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죄를 용납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화해의 일꾼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동성애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에베소서 4장 15절), 온유와 겸손함으로 진리를 위해 싸운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성직자들의 스트레스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이들이 출석률을 높이려는 영국성공회의 노력이 실패하고 사라질 것을 우려한다. 조사에 참여한 성직자 중 중 3분의 2는 “출석률 감소를 막으려는 노력이 실패할 것”으로 봤다.

이번 설문조사는 교회 내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뤘다. 성직자의 80% 이상이 “여성(영국성공회 수장인) 캔터베리대주교로 임명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도버 교구의 로즈 허드슨-윌킨 주교는 회가 여성 지도자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강혜진 기자

## 中, 교회에 ‘공산주의 홍보 의무화’ 새 규정 시행

중국이 이번 달부터 교회들에게 공산주의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금지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새 규정을 시행 중이다.

전 세계 핍박받는 기독교인과 동역하는 한국순교자의소리(한국 VOM)에 따르면, 중국에서 지난 9월 1일 발효된 ‘종교 활동 장소 운영에 관한 조치’(Measures on the Administration of Religious Activity Venues)는 “교회가 먼저 공산주의자가 되고, 그 다음 기독교인이 되어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순교자의소리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는 “예수님은 ‘누구든지 우리를 위해 살지 않는 자는 우리에게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국 공산당이 이 새 규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접근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의 이러한 새로운 요구 사항은 ‘교회가 계속 운영 허가를 받으려면 공산주의 홍보를 첫 번째 목표로 삼아야 하며, 이것이 교회의 종교적 신념을 홍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특히 새로운 규정 제30조를 주목했다. 이에 따르면, 종교 활동 장소를 운영하는 단체는 아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a) 종교를 믿는 시민들이 조국을 사랑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지지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종교를 중국화하는 지침을 고수하고, 헌법과 법률과 규정과 규

칙과 종교 사무 관련 조항들을 준수하도록 단결시키고 교육한다.

(b) 종교 단체들 각각 자체적으로 정한 규칙을 준수한다.

현숙 폴리 대표는 “9월 1일을 기점으로, 중국교회가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게 됐다. 이제 중국교회는 공산주의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돼야 한다. 새 규정 제27조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조국을 사랑하고 공산당의 지도력을 지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제39조에는 ‘설교와 복음 전파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국가적 상황과 시대적 특징에 부합해야 하며, 중국의 탁월한 전통 문화를 통합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부 승인을 받은 교회들이 이제 중국의 일부 국영 언론보다 더 열렬하게 공산주의를 찬양하며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중국 국영교회인 삼자교회(삼자교회)가 2022년 말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 회의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주최했던 때부터 이러한 추세가 시작됐다고 분석한다. 그녀는 “공문 내용은 모든 종교 장소 입구에 ‘중국 공산당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종교를 사랑하라’는 글귀와 ‘중국의 상황 안에서 종교를 발전시킨다는 원칙을 옹호한다’는 글귀가 적힌 대형 간판을 세워야 한다’고 것이었다. 9월부터 시행된 새 규정으로 인해 이런 종류의 압박이 더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혜진 기자



# 美 하이랜드 교회, 새 캠퍼스 개회 예배에 3,000명 운집



2023년 8월 27일 미국 앨라배마 주 앨라배스터에 위치한 하이랜드 교회의 새 캠퍼스 예배에 수천명의 교인들이 참석했다. ©하이랜드 교회

미국 앨라배마 주에 위치한 대형 교회인 하이랜드 교회(Church of the Highlands)의 위성 캠퍼스에서 열린 이전 감사 예배에 3,000여 명이 참석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2015년에 창립된 앨라배스터(Alabaster) 캠퍼스는 지난 3일 새로운 장소에서 첫 예배를 진행했다. 이 캠퍼스는 이전까지 인근의 톰슨 중학교(Thompson Middle School)에서 모임을 가졌다. 하이랜드 교회의 담임목사 리더십 팀 일원인 레인 슈란츠(Layne Schranz) 목사는 CP와의 인터뷰에서 “개회 주일에는 총 3부 예배시간에 2,980명이 참석했다”고 언급했다.

슈란츠 목사는 “알라바스터 시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려는 열정을 품고 있다”면서 “지역사회의 중심에 위치하여 이 장소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지역사회와 하이랜드 교회 가족들을 위한 봉사를 모두 확장시킬 수 있다”며 톰슨 중학교와의 협력에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주간 임대 수준 이상의 향상을 이룬 덕분에 투자할 수 있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하이랜드 교회가 헌츠빌(Huntsville) 시에 두 번째 지교회 캠퍼스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츠빌 캠퍼스의 기공식은 9월~10월이며, 2024년에 완공될 때까지 지역 영화관에서 교

인들이 모임을 가질 계획이다. 슈란츠는 “우리는 엄청난 성장을 경험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보는 것은 정말 놀랍다”고 말했다.

하이랜드 교회는 2001년 크리스 호지스(Chris Hodges) 목사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그는 'ARC 처치'(Association of Related Church)라는 교회 개척 및 성장 단체를 설립에 기여하여 수백 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2019년에는 하이랜드 교회가 앨라배마 주 이외에 조지아 주 콜럼버스에 첫 지교회 캠퍼스를 설립했다. 그 당시에 공개된 환영 영상에서 카일 잭슨(Kyle Jackson) 담임목사는 콜럼버스 캠퍼스가 “그 지역에서 기도하는 소그룹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잭슨 목사는 “오번(Auburn)과 오펀리카 캠퍼스(Opelika campuses)는 차로 45분 거리에 있어 비록 시간대는 달라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가고, 이곳에서 소그룹을 모아 함께 기도했다”며 “우리는 결국 이곳에도 캠퍼스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이며,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보게 될 수확은 기도를 통해 심어진 씨앗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이랜드 교회는 현재 24개 이상의 지교회 캠퍼스로 성장했다. 김유진 기자

# 美 담임목사 평균 연령 '52세' 4명 중 3명 “젊은 후임자 부족”



©Mitchell Leach/ Unsplash.com

미국 목회자들의 평균 연령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은퇴를 준비하는 담임목회자가 젊은 후임자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바나(Barna) 그룹은 2022년 9월 6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전역의 개신교 담임목사 58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 연구에 참여한 목회자 중 약 75%는 “성숙한 젊은 기독교인 중 목사로서 일하려는 사람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 3명 중 1명은 “목회자가 될 젊은 기독교인을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주장에 “강하게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수치는 2015년 24%에 비해 상당히 증가했다.

바나 그룹에 따르면, 현재 미국 목회자 중 40세 이하의 비율은 16%이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미국 교회는 실질적인 승계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2022년 기준으로 개신교 담임목회자의 평균 연령은 52세이다.

바나의 2017년 목회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노년기와 경력 후반 단계에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목회 세대가 고령화되고, 퇴임을 준비할 때, 교회가 이러한 전환에 대비하고 있는

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더욱이 나이 많은 동료 목회자에 비해, 젊은 목회자들이 이미 더 많이 탈진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위기는 더욱 악화되고 가속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목회자 중 38%는 “리더십 공급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답했으며, 40%는 “필요성을 고려해 봤지만, 다른 사역 관련 문제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또한, 목회자의 14%는 “자신의 사역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오늘날 미국의 기독교 리더십의 미래는 불분명하다. 바톤을 전달하기 위해 현재 대부분의 교회에서 보여주는 것 이상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들의 계획은 떠오르는 세대를 이해하고 강력한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비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21년 10월 바나 설문 조사에 따르면, 미국 목회자 10명 중 거의 4명(38%)이 “전임 사역을 그만두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같은 해 1월 조사 결과인 29%에 비해 상당한 증가였다. 2022년에는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등 몇몇 개신교 교단이 전국적으로 최소 600명 이상의 목회자 부족 문제를 경험하여 승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김유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오명찬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OC예배 오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OC예배 오후 7:3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후 5:30/ 토 오후 6:00  
새벽기도회 오후 5:30/ 토 오전 6:0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93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1, (818) 363-8887

**최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플라시(Callig), 고치교(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 549-9199 / choonghyun.org

**국윤권 담임목사**

## 사우스베이, 오렌지카운티 지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Redeeming Grace(EM)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영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326-0300, http://rpcsc.com

**이항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B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 532-0191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홍장로교회**  
파송기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서보천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 787-7766 / www.gwctorrance.com

**김경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이중용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9성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gcc.org

**김유준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 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고창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P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국학교(토요일) 오전 9:00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 402-2919 www.cmchome.org

**방상용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 주 일 오후 3시  
LA 벨기든구국재단: 매 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이우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정애민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부 오전 9:30, 11:30  
한어(한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M)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내가 나를 사랑하는나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주혁로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EM) 주일 11: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안창훈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지영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서서 오전 9:30(금)  
청년예배 오전 9:00(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령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임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성령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부분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김한요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9대학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박신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일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등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필일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20 토요일 오전 6:00  
3부예배 오후 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령받은교회 세계선교를 이루리겠다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한기홍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박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dla.com

**최순환 담임목사**







# Biblely

## 미리 준비하는 2024년, 성경 통독으로 하나되는 공동체

세계 최고 수준의 시 오디오 성경

# “단 30분의 녹음으로, 담임목사님의 오디오 성경을 만들어 보세요”

### 60DAY 신약통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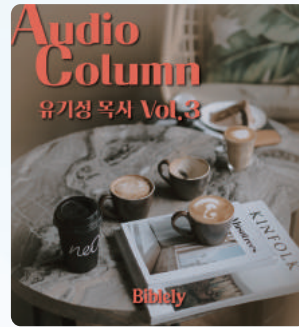


**김은호**  
2022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며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김은호 목사와 함께 60일 신약듣기

### 담임목사님 음성으로 통독하기

오디오 성경을 제작하시면  
교회별 맞춤 성경통독, 성경듣기표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전교인 통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오디오 칼럼 Vol.3



**유기성**  
이 앨범은 유기성 목사님의 칼럼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글들을 모아  
보이셀라의 시 음성합성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 단 한번의 녹음으로 QT, 칼럼, 오디오북까지

목사님의 음성 모델이 만들어지면,  
오디오 성경뿐 아니라  
목사님과 전 교인을 위한 QT, 칼럼,  
오디오북까지 쉽게 제작할 수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호응 속에  
성경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00일 성경통독  
선한목자교회



90일 성경통독  
온누리교회



100일 신약통독  
중앙성결교회



공동체 성경 읽기  
지구촌교회

바이블리 '시 오디오 성경'은  
친근한 목회자 및 가족의 음성으로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 오디오 성경입니다.

지금까지 온누리교회  
하용조, 이재훈 목사님과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 등

많은 목회자분들이 성경 읽기 및  
말씀 전파라는 비전을 공유하며  
바이블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 기독일보

www.chdaily.com  
T : (213)739-0403 chdailya@gmail.com  
3055 Wilshire Blvd, Suite 480, LA, CA 90010





강준민 칼럼

# 감사의 기준을 낮추는 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감사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습관은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나쁜 것은 쉽지만 좋은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쁜 습관은 너무 쉽게 형성됩니다. 반면에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살전 5:18)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엡 5:20).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 노트에 하루에 세 가지 감사를 기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놀라운 지혜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감사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감사의 기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

만 아주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아주 좋은 일은 특별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경험할 수 없는 큰일입니다. 아주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에 인색한 사람이 됩니다. 감사에 인색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열매입니다. 행복은 직접 추구함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간접 경험입니다. 착한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섬길 때, 또한 감사할 때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감사할 때 행복한 까닭은 감사가 행복의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기술 가운데 우리가 터득해야 할 기술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기술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감사의 기준이 너무 높고 큰 것입니다. 조금만 기준을 낮추면 감사할 일이 많아집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다각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다(thank)”는 영어 단어의 어원은 “생각하다(think)”에 있습니다.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작은 것을 잘 관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숨 쉬는 것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산소 호흡기를 의지해서 숨을 쉬는 사람은 산소호흡기 없이 숨을 쉬는 것이 기적으로 느껴집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숨을 쉬며 살아 있다는 것은, 어제 이 땅을 떠난 사람이 그토록 소원했던 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걸어서 화장실에 가는 것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뇌졸중으로 화장실에 갈 수 없는 사람에게 혼자서 화장실에 가는 것은 기적으로 느껴집니다. 오랜 세월 동안 파킨슨병을 앓으면서도 글을 써서 수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정신신경과 의사가 있습니다. 김해남 의사입니다. 평소에 2초 만에 갈 수 있는 화장실을 5분이나 걸려 힘겹게 도착하는 날이 있었습니 다. 그분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는 한 발짝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줍니다. 조금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는 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격려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삶을 포기하지 말고 용기 내어 일단 한 발짝만 내딛어 보라. 나는 화장실에 가기까지 5분이 걸렸지만 도착한 순간 해냈다는 기쁨에 환호성을 질렀다. 당신이 누구든, 어떤 상황에 있던 한 발짝을 내딛던 순간 알게 될 것이다. 용기 내기를 참 잘했다는 것을.”(김해남,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작은 것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골 4:2). 거룩한 감사는 축복의 크기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샘 크랩 트리는 “거룩한 감사는 축복의 크기에 상관없이 온전히 깨어 있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진정한 감사는 축복의 크고 작음을 따지는 데

달려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면 감사의 조건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함 속에 행복이 깃들여 있습니다. 작은 것 속에 큰 기쁨이 감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작은 것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작은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작은 것이 큰 것입니다. 작은 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겨자씨의 원리입니다(마 13:31-32).

작은 것에서 행복을 누리고, 작은 것 속에 담긴 놀라운 축복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천국을 미리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쾌락을 끝없이 추구하거나 욕망을 채움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은미 교수는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불만족은 커진다는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현실에서 쾌락을 얻는 속도보다 욕망이 커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박은미 교수는 “37평 아파트를 얻기 위해 돈을 버는 속도는 매우 느리지만, 42평 아파트에 대한 욕망이 생기는 속도는 아주 빠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다는 매우도 인간의 욕심은 매우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무한해서 누구도 다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욕심을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절제하는 데 있습니다. 자족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의 기준을 낮추는 기술을 익혀 날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구봉주 칼럼

# 생명의 서(書)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니어들에게 필요한 성경적인 인생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사명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랬고, 또 하나는 죽음에 대한 성경적이면서, 종말론적인 시각과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신앙과 삶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자서전과 같은 내 인생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신앙을 담은 에세이를 써서, 자녀들을 위해 기록을 남긴다는 점이 매우 신선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책의 내용을 시니어분들에게 잘 전할 것인가 고민할 때는 머리가 복잡했지만, 책을 통해, 자녀들에게 저의 개인적인 인생관, 성경관, 신앙관,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남긴다고 생각하니, 펜이리 진중해지고,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지난 세월이 주마등 같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생각나서 감사했습니다.

이 책을 공부하며, 또 한 가지 와 닿았던 점은 책의 내용이 결코 시니어들에게만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책의 주안점은 독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비전을 다시 고민하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이러한 주제는 시니어는 말할 것도 없고, 청년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 필요한 주제입니다.

최근에 한 은퇴 목사의 임종예배에 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사는 모범적인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임종예배 때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서, 큰 소리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후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참으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만의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목사님과 같은 멋진 인생을 꿈꾸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인생, 자녀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보기에 모범적인 인생, 친구와 지인들이 보기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 다.

내년 2024년에는 생명의 서를 교재 삼아, 시니어 아카데미 특별 인생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세미나는 단순히 시니어들만을 위한 세미나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인생을 통해 가르쳐 주신 지혜와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록하여 후대에 전할 뿐 아니라,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다 존귀하고 아름답게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매주 금요일 조선일보 가판대에서 기독교일보 신문 보실 수 있습니다.

##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베르크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기독교샵**  
www.Kidokshop.com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교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웹브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collisioncenter@gmail.com

24시간 비상응급 센터가 운영되어 있습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영양의 정성이 가득...  
이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채반 오뎀떡  
슬랑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진유철 칼럼

# 사명을 위해 사는 삶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 주어지는 이 땅에서의 인생이 끝나면 죽음 이후 영생과 영벌의 심판과 상급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후보 선수와 같은 삶이 아니라 출전선수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감독하시는 인생에서 출전선수가 되는 길은 바로 사명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빙스턴은 말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위 수여식에 앞선 예배시간에 리빙스턴은 학생들 앞에서 간증을 하듯 아프리카에서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무덥고 짜증나는 태양이 작열하는 한 낮과 춥고 소름끼치는 밤 동안 자신과의 싸움은 계속 되었으며, 온갖 짐승의 공격과 원주민들의 방해로 인한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

의 오른 팔은 사자의 공격으로 불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 말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로 하여금 그토록 힘든 아프리카 생활을 이겨내도록 한 비결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리빙스턴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게 있어 비결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마28:20)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는 죽지 않습니다.’는 용기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20:24)

사명을 깨닫은 사람은 사는 방법이 달라 집니다. 시간이 남거나, 건강하거나, 재능이 뛰어나거나, 소유가 많아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행하기에 나머지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삶의 열매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티(Karl Hiltthy)는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목적에 쓰겠다고 작정한 그 목적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노동을 위해, 돈과 명예를 위해, 쾌락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사명을 위해 사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롬!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귀한 경기에서 벤치에만 앉아있는 후보 선수와 출전선수 중 어느 쪽이 되기를 원하느냐고 물으면 당연히 출전선수를 선택할 것 입니다. 실상 후보 선수가 육체적으로는 더 편하겠지만, 그러나 귀한 경기가 주는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쪽은 땀 흘리며 강한 적과 싸우는 출전

윤임상 교수의 교회음악 이야기

# 어찌 찬양 안할까(How can I keep from singing)



윤 임 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 음악학과장

찬양 안 할까, How can I keep from singing)”는 19세기 후반에 일본의 초교파 목사인 사사오 테쓰사부로(T.Sasao: 1868~ 1914)가 작사한 곡으로 당시 일본에 널리 퍼져있는 교회들에서 이미 찬송하였던 곡입니다.

이 곡은 원래 미국의 침례교 목사인 작곡가인 로버트 로우리 (Robert Lowry, 1826~1899)가 쓴 곡입니다. 그가 1869년에 그의 노래집 ‘Bright Jewels for the Sunday School’에 실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곡입니다. 이 곡이 발표된 당시에는 미국의 3차 대각성 부흥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복음으로 인한 소망이 중심 가사가 되어 복음 찬송이 많이 작곡됐고 그 찬송들을 부르며 미국 교회는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이때 만들어진 찬송을 당시 선교사들로부터 받아 들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 찬송의 중심이 되었고 한국 교회사에 찬양을 통한 복음 전파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 때 만들어진 찬송들이 우리 찬송가에 많이 남아있고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그것을 즐겨 찬양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중 후반, 미국의 3차 부흥 운동 시기에 로우리 목사는 미국 교회음악에 중심 인물로 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1869년 처음 이 곡을 썼을 때, 제목은 “How can I keep from singing”으로서, 현재 우리가 찬양하는 가사와는 많이 다릅니다. 당시 로우리 목사는 작시자를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원래 내용은 시편 96편의 내용을 중심으로 만든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온

세상이 마땅히 주님의 의로우심, 광대하심, 존귀와 위엄, 공의로우심을 찬양해야 한다고 선포하며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내 삶은 끝없는 찬양 속에 흘러가고 어떠한 폭풍이 내 마음의 고요함을 흔들 수 없습니다. 이 어찌 찬양을 안 할 수 있었습니까?”

작곡자 로우리 목사는 위의 내용을 가사에 중심으로 삼아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찬송은 일본의 사사오 목사가 1897년에 로우리 목사가 작곡한 선율에 맞추어 원제목을 그대로 채 가사를 패러디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는 찬양을 드려야 할 당위성을 원래 저자의 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고백을 합니다. 1절에서는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복음으로 인한 승리, 2절에서는 말씀을 통한 축복 그리고 3절에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천국 소망으로 인한 기쁨,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찬양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원곡의 의도대로 어찌 찬양 안 할까(How Can I keep from singing)라는 절대성을 강조하며 찬양을 통한 고백에 절정을 이루게 합니다. 이 곡이 한국 교회로 처음 소개된 것은 성결교회 최초의 찬송가인 “신증 복음가, 1919”를 통해서였으며, 그것을 오늘날까지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며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복음을 통한 축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미국의 교회사를 통해 보았듯이 우리 민족은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나중에 복음이 전파된 나라입니다. 하지만 아시아에서 뿐 아니라 온 세상을 선교지로 삼아 복음을 전파하는 중심국가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십니다. 아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일에 관한 여러 분야에서 빨간불이 켜지며 경고하는 것을 그냥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혼란의 극치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당위성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 로우리 목사를 통해서 주는 모든 환경에서 평안과 소망으로 이끄시며 고요함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중에 사사오 목사를 통해 주는 복음으로 인한 승리, 말씀을 통한 축복 그리고 천국 소망으로 인한 기쁨이 이 찬송가에 실려있기에 이 찬송의 고백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체스터턴(G. K. Chesterton, 1874-1936)이 당시 세계와 기독교 전통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깨달았던 “비록 오늘날 세상이 주는 무자비한 혼란 속에서 어떻게든 세상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사랑해야 하고, 어떻게든 세상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면서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 고 했던 그의 결심을 많은 혼돈 속에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들에게도 깨달음이 되어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어찌 찬양 안 할까 (How can I keep singing)의 진솔한 찬양고백을 마음에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 2 차**  
**성경쉽게읽기 특강**

성경쉽게 읽기선교회에서 **성경 일천번이상 통독**하신 데이비드 리목사가 첫 특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제2차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읽기를 사모하는 자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 시:** 2023년 9월 9일, 16일, 23일, 30일, 매주(토) 오전 11시(4주간)
- **장 소:** Kairos University Campus (얼바인 분교 2층)  
2681 Walnut Ave, Tustin, CA 92780
- **등록인원:** 30명 선착순(인원이 차면 다음 기회에)
- **등록비:** \$50 (교재 및 Fellowship), (수료하신 분은 무료청강)
- **등록방법:** 949-304-8912 이메일: bible100plus@gmail.com
- **강 사:** 데이비드 리 목사
- **주 최:** 성경쉽게읽기선교회 (본 선교회는 성경읽기에 관하여만 가르칩니다)



**청빙**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어”라는 사명으로 1993년에 창립되어서 30주년을 맞이하는 메릴랜드 빌립보교회(초교파)에서 유/초등부(K-5학년)를 담당하실 사역자를(Full time) 청빙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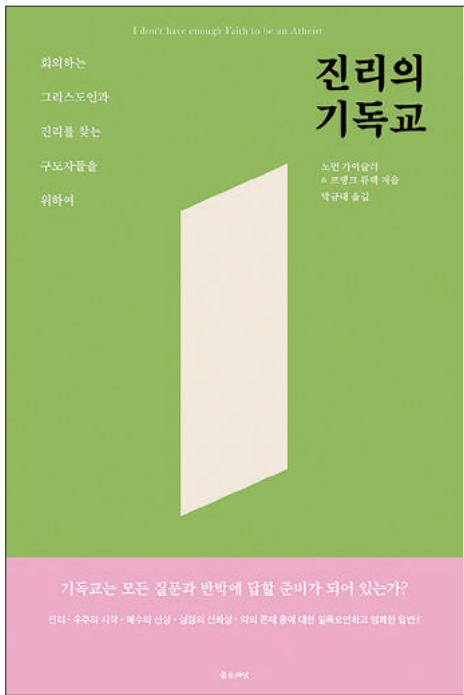
- 1. 사역 범위**
  - 150 여명에 이르는 K부터 5학년까지의 유/초등부 예배 인도 및 설교(영어)
  - 주일학교 교사 교육 및 훈련
  - 주일학교 행사 및 activity 인도
- 2. 지원 자격**
  - 1) 1년 혹은 그 이상의 유/초등부 사역 경험
  - 2) 정규 신학대학원(M.Div) 혹은 아동교육 관련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신 분
- 3. 제출 서류**
  - 1) 이력서
  - 2) 자기소개 및 신앙간증문 (소명, 목회비전, 사역경력 등 포함)
  - 3) 추천서 2부 (각 추천인 연락처 기재)
- 4. 접수 및 방법**
  - 1) 서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 2) 문의 및 서류제출:  
청빙 담당자 : 박일웅 (diwpark@gmail.com)
- 5. 참조**  
빌립보 교회 홈페이지 (www.churchofphilippi.org)

**빌립보 교회**



[종교는 믿음, 무종교는 과학?]

# 유신론과 무신론, 어느 것이 더 '믿을 만할까'?



생태계를 만들었다는 세계관도 믿음을 요구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것이 더 많은 신앙심을 요구하는지 따져보기도 전에, 대다수의 사람은 기독교를 배척한다.

노먼 가이슬러와 프랭크 튜렉은 <진리의 기독교: 회회하는 그리스도인과 진리를 찾는 구도자들을 위하여>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기독교를 변증한다.

가이슬러는 성경의 무오성을 굳게 믿는 복음주의 변증가이지만, 이 책에서 성경 본문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최대한 공정하게 두 세계관을 평가하기 위해, 인간의 이성과 객관적 사실만을 활용하기 위함이다.

성경 증언의 사실성을 따질 때는 성경 자체를 검증 대상으로 삼는다. 성경 저자의 진술이 얼마만큼 신빙성 있는지, 어떤 근거로 과장이나 왜곡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한다.

프랭크 튜렉은 작가, 강사, 라디오 진행자로 여러 변증 서적을 집필했고 변증 기관을 설립 및 운영하고 있다. 두 사람은 원래 'I don't have enough Faith to be an Atheist'가 말해주듯, 이 책을 통해 무신론적 세계관이 훨씬 더 많은 믿음을 요구한다고 고발한다.

삶은 조각 그림 맞추기와 같다. 세계관은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는 퍼즐 상자의 큰 그림이다. 우리 삶을 안팎으로 둘러싼 증거들이 어떤 큰 그림을 보여주는지, 가이슬러와 튜렉은 총 15장의 내용과 3개의 부록으로 설명한다.

먼저 두 사람은 상대주의가 만연한 세계에서 살아가는 독자에게 절대적 진리가 존재해야 함을 설득한다. 오직 종교만이 믿음을 요구하고 종교가 없는 이들은 팩트만을 가지고 산다는 신화를 깨부수고, 모두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밝혀낸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세상의 시작이 있다는 사실, 세상이 매우 복잡하고 체계적으로 설계돼 있다는 사실, 세상에 도덕과 윤리가 절대적 가치를 근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저자들은 이를 통해 우리 삶의 조각이 맞춰질 때마다 기독교 세계관이 더욱 합리적인 큰 그림에 부합함을 보여준다.

여기까지가 사실이라면, 초월적 존재이자 만물을 창조한 신이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도 합리적 사실이 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신이 존재한다면, 그 전능한 신이 유한한 피조세계 안에 들어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가이슬러와 튜렉은 이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제시한다. 성경 외적 고대 문서 자료에서 예수에 관한 기록을 찾고, 성경이 묘사하는 예수에 관한 증언이 얼마나 믿을만한지 평가한다. 그들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열 가지 증거를 설명하고,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보게 만드는 이유를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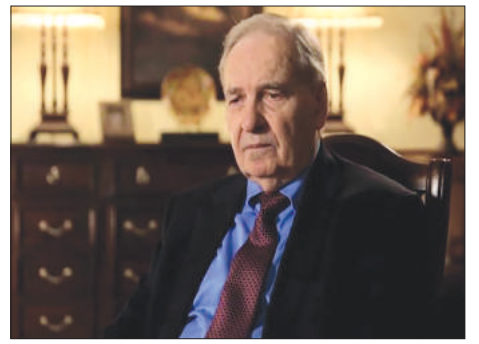
여기까지가 사실이라면, 예수는 하나의 위대한 스승에서 멈출 수 없다. 스스로 신이라 주장한 미친 사람이거나 사기꾼, 아니면 실제 부활로 입증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 저자는 예수님이 성경 자체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다루고, 결론적으로 이 모든 변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관, 왕으로 영접할 것을 요청한다.

부록에서는 악의 문제를 다루고, 예수 세미나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비판한다. 무신론자와 그리스도인의 대화체로 구성된 부록은 책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변증할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두 저자가 말한 것처럼, 어떤 이들은 지적 장애물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또 많은 이들은 의지적으로 기독교를 거부한다. 아무리 많은 증거를 내밀어도 돌처럼 딱딱한 의지가 꺾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의지를 꺾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기독교>를 통하여 많은 지적 장애물을 허무실 수 있다. 무신론적 세계관에 잠식된 영혼들에게 그들이 팩트라고 믿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신앙을 요구하는지



저자 노먼 가이슬러 박사. ©크투 DB

말해줄 수 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기독교 세계관에 회의를 품고 방황하는 이들이 많다. 하나님은 <진리의 기독교>를 통하여 그들이 더욱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심지어 과학적인 진리 체계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 알게 하실 것이다.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에 틀림이 없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밭에 있는 여러 장애물들을 이 책을 통해 철저히 제거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좋은 밭에 말씀이 심길 수 있도록, 이 책이 널리 활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조정익  
크리스찬뉴스 편집인

**진리의 기독교**  
노먼 가이슬러 · 프랭크 튜렉 |  
박규태 역 | 좋은씨앗 | 688쪽  
22,500원

**회회하는 그리스도인과 진리 찾는 구도자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기독교를 변증**

상대주의 도덕론과 포스트모더니즘을  
훼파하고, 나아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기독교의  
진리를 향해 체계 있게 행진해  
나아가고 있다.  
기독교의 진리를 직접 만날 수  
있기를 기대!

가장 이상적인 변증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전제주의 변증학). 그리고서 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무신론적 세계관 중 어떤 세계관이 실제 세계를 잘 설명하는지 증거를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증거주의 변증학).

보통은 종교를 하나의 신념으로 치부하고, 무신론적 세계관을 과학으로 검증된 사실로 보는 경우가 많다. 소설과 팩트를 비교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초월적인 지적 설계자가 만물을 창조했다는 세계관에 신앙이 필요한 만큼, 만물이 무에서 저절로 지금의 다채롭고 복잡한

##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며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13, 14

MATTHEW 7:13, 14

"Enter through the narrow gate. For wide is the gate and broad is the road that leads to destruction, and many enter through it. But small is the gate and narrow the road that leads to life, and only a few find it."

**FI PLUMBING**  
213-434-8947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부터**

**FI PLUMBING**

저희는 고객님의 편안한 생활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최고의 기술과 정직한 가격으로 고객님의 만족할때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ABOUT US:**

24시간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플러밍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CONTACT INFO**

**CALL:**  
**213-434-8947**  
fiplumbing2022@gmail.com

**MORE CONTACT INFO:**

@FIplumbing  
 @FIPlumbing



박옥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SBS <국민사형투표> (1)

# 흥악·강력범죄 증가... <더 글로리> 이어 <국민사형투표> 인기로

사적 제재 콘텐츠 잇따라 제작돼 2000년대 일본과 비슷한 분위기 사회구조와 개인 양자 모두 문제 강력한 단죄만이 정의구현 가능? 성경, 공의 위해 사형 찬성하지만 사적 제재는 공의 범주 안 들어가

### ◆흥악범죄와 복수: 사적 제재 줄거리가 인기를 얻는 시대적 정황

SBS 목요드라마 <국민사형투표>는 사법 불신과 사적 제재에 관한 드라마로, 2015-2016년 다음에서 연재된 동명의 웹툰을 드라마로 옮긴 작품이다. 이와 유사한 소재와 설정을 가진 작품으로는 웹툰 <비질란테>(2018-2021 연재)가 존재한다.

드라마 <국민사형투표> 시청률은 현재 4%대로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이 드라마를 본 시청자들은 작품의 화제성에 주목한다. <국민사형투표>는 묻지 마 살인을 비롯한 각종 강력 흥악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현 대한민국 상황에 시의적절하게 들어맞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의 엄정한 처벌을 간교하게 피한 흥악 범죄자들에 대한 조직적 사적 제재라는 소재는 사실 일본과 미국에서 먼저 미디어 콘텐츠로 적용됐다. 이미 2000년대에 일본의 <원한해결 사무소>, <테스노트>, 그리고 미국의 <텍스터>가 각각의 방식으로 악질적 범죄자들에 대한 사적 복수와 단죄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미국은 치안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고 총기 소지도 자유화돼 있어 상대적으로 흥악범죄 발생률이 높은 국가군에 속한다. 게다가 피해자 유족 측에서도 어렵지 않게 총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가해자에 대한 복수도 쉽게 가능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를 찾아내 살해하는 복수극이 종종 발생한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자경단, 민병대 전통이 있었다.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범죄자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에게 적절한 형벌을 가하지 않는 경우, 마을 주민들이 직접 처단에 나서서 일이 잦았다. 이런 전통은 미국 남부에서 흑인들에 대한 린치 살해의 명분으로 자주 악용되기도 했다.

오늘날에는 미국도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치안 및 사법 체계가 확고하게 정립돼 있어 사적 제재를 엄금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내에서는 복수를 위한 사적 단죄의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사적 제재와 관련된 미국의 이런 정서는 미국 미디어 업계에서 자주 소재로 활용됐

다. 대표적으로 <배트맨> 시리즈의 브루스 웨인, <왓치맨> 시리즈의 로어셰크 등이 사적 제재를 어느 정도 용인하는 미국의 전통 정서를 대변하는 캐릭터라 볼 수 있다.

반면 미국과 달리 일본은 공권력이 대단히 강력하고 치안 수준 역시 높은 국가로 분류된다. 총기 소지가 금지돼 있고 공권력을 거스르는 사회적 일탈 행위를 크게 터부시하는 풍조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연달아 터지는 흥악·강력범죄와 반사회적 범죄로 흥역을 앓은 바 있다.

1990년 헤이세이 버블 붕괴를 시작으로 일본의 전체 사회구조 및 가치관이 급변했고, 이 시기 청소년 및 청년층을 중심으로 일본 사회를 뒤흔드는 흥악범죄가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다. 이후 일본의 범죄율은 취업 빙하기 막바지였던 2003년경 절정에 달했고, 이후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일본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경제성장과 풍요를 누릴 수 없게 되자, 호시절에 교육을 받고 성장한 당시 젊은 세대는 혼란과 좌절감을 맛보게 된다. 이 시기 일본의 히키코모리 수는 최고점을 찍었고, 과거 볼 수 없었던 무차별 살상 범죄가 당시 청년층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발생했다.

일본 미디어 업계에서 사법 불신, 사적 제재, 촉법소년이라는 소재가 크게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시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원한해결 사무소>(2000-2007년 연재), <테스노트>(2004-2006년 연재)가 대표적이고, 버블 붕괴 시기 촉법소년의 존속 살해와 청년들의 범죄행각을 그려낸 드라마 <백야행>(2006년 방영) 역시 비슷한 류의 작품으로 주목할 수 있다.

### ◆흥악범죄와 정의: 흥악 강력범죄의 원인과 처벌을 둘러싼 고민

최근 한국에서도 일본의 2000년대 초반과 비슷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국가의 경제성장 전망은 비관적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겪고 있으며, 생산가능 인구나 전체 인구 수 모두 감소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일본보다 훨씬 더 심한 남유럽 식의 장기 디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현재,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얻기 어려운 현실에 좌절하는 청년 세대 중 일부가 전에 거의 볼 수 없었던 무차별 살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 외에도 인구 수 대비 강력·흥악범죄 비율 역시 전 세대에 걸쳐 증가 중이다.

가장 확연한 증거 추세에 있는 범죄 유형은 흥악범죄에 들어가지 않는 사기죄이지만, 일정 수준의 발생 건수를 유지하고 있는 살인이나 급증하고 있는 성폭력(강간) 같은 범



사법 불신과 사적 제재, 국민투표라는 소재를 엮어 흥악 강력범죄에 대한 정의구현의 의미를 묻는 드라마 <국민사형투표>

죄가 더 잔혹하고 비열한 양상으로 극단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법계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이전보다 양형 수준을 높여가고 있지만, 아직 국민들의 기대치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사형제의 실질적 폐지는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경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은 증대되고, 사형제 부활을 외치는 목소리 또한 그에 비례해서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국민감정에 편승한 범죄, 사법 관련 소재의 작품들이 미디어 업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풍자하며 픽션의 세계 안에서나마 흥악 강력범죄자를 단호하게 처벌하는 대리만족형 작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소년심판>(2022), <어게인 마이 라이프>(2022), <더 글로리>(2022-2023), <국민사형투표>(2023) 모두 이러한 사회적 정황과 미디어 업계의 조류를 타고 방영된 작품들이다.

흥악범죄와 그에 대한 법의 심판에 관하여 이 작품들을 관통하는 물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로 점차 빈발하는 지독하고 악질적인 양상의 범죄들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인가, 아니면 개인의 타락에 의한 문제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둘째로는 온전한 정의구현을 위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형벌을 가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첫 질문에 답하기는 어렵지 않다. 2000년대 일본 사회, 그리고 2020년대 한국 사회가 맞이한 흥악·강력범죄 증가 사태는 사회 구조와 개인 양측 모두의 문제가 얽혀들어 초래된 것이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가 과거 세대의 패러다임을 머릿속에 주입당한 채 이전보다 급격하게 악화된 삶의 정황을 맞이해야 하는 현실은 사회구조의 문제이고, 이 문제적 정황 속에서 도덕성을 지키려는 의지를 함부로 놓아버리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다. 이 두 요인이 맞물려 범죄

양태가 점점 더 악질적으로 변해가는 현재의 당혹스러운 상황이 도래하게 된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훨씬 대답하기 어렵다. 과연 어느 정도의 형량을 부여해야 정의구현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특히 사형 집행은 꼭 필요한 것인가? 드라마 <국민사형투표>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 드라마는 사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물론 현재는 초반 줄거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그런 면이 없지 않다. 만일 드라마 줄거리가 웹툰과 유사하게 흘러간다면, 작중 사형투표의 본의는 변질될 것이고 그에 따라 드라마의 메시지는 사적 제재로 행해지는 살인 그 자체도 흥악·강력범죄의 하나라는 식으로 변경될 것이다.

하지만 이 드라마를 시청하는 이들의 뇌리에 더 강하게 남는 메시지는 전자의 메시지이다. 사적 제재가 법질서를 위협하고 사회에 혼란을 조장하며 결국에는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보다, 사적으로 범죄자들을 단죄해서라도 선량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자는 메시지, 즉 강력한 단죄만이 유일한 정의구현의 길이라는 메시지가 훨씬 더 강렬한 기억을 남긴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성경은 과연 이 사안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

기독교계 내부에서는 죄악에 대한 강력한 단죄, 특히 사형의 필요성이라는 논제를 두고 오랫동안 여러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언쟁을 벌였다. 하지만 성경의 단순하고 명료한 가르침과 사려 깊은 신학자들의 의견 전반은 대체적으로 다음의 견해로 수렴된다.

사형은 흥악 강력범죄에 대한 공의로 운 심판을 위해 반드시 시행돼야 하지만, 사적 제재를 통한 살인은 적법하고 공의로운 사형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옥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 칼라 \$40 부터 시작 \$20 부터 시작

매직 스테이트 \$150 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를 실제 사신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mystylist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트+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7:00 PM 토요일 09:00 AM ~ 6:00 PM

Tel: 213-739-1022





#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70% Tax Benefit

**2023년  
대박**



**100%  
Made in  
USA**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56% ~ 70%**

연방 ITC : 30% 이상  
감각상각: 최대 80% 적용  
(2023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 ✓ 최고 성능의 패널 사용
- ✓ Zero Down Payment
- ✓ 전기료 50~90% 절감
- ✓ EV Car Outlet Free

Lic#854389

**\*\*\* 전기세 50~90% 절감 \*\*\***

## Why BTS Solar?

(왜 BTS 솔라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 ✓ 전기세 ~~30~50%~~ **50~90% 절감효과**
- ✓ **Zero Down Payment**
- ✓ **최고 성능의 안정적인 패널**
- ✓ 모든 제품군 **최장기간 Warranty**
- ✓ 남가주 전 지역 **최단기간 설치**

### • 태양광 설치 효과

태양광 설치 시 얼마나 많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첫째, 얼마나 많은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지, 둘째, 패널을 설치할 지붕의 방향과 각도가 태양광을 받기에 얼마나 적절한지 등에 달려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 현장 실사하듯 에너지 효율 체크합니다.

### • 저렴한 맞춤형 파이낸스

별도의 담보도 필요없이 크레딧으로만 설치되며 가장 저렴한 Payment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설치 후 1년 동안은 100% 태양광 설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1년 후부터 Payment가 시작됩니다. Payment가 시작되어도 현재 전기료의 70~80%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 안정적, 효율적 제품으로 신속 정확한 시공

한국인 팀장이 주축이 되어 고객과 소통하며, 최고의 설치 노하우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효율적인 제품만을 선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시공합니다.

[www.btssolardesign.com](http://www.btssolardesign.com)

TALK BTSSolar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CELLS PARTNER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세요.

1. 문의 전 전기세 고지서를 준비해주세요.
2. 전기세 고지서 사진을 찍어서 Text Message 혹은 카톡 주세요.
3. 메시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